

▶ 달러/원 주간 전망

• 원래 박스권으로 복귀할까

서울, 1월2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주 단기 박스권을 쉽게 상향돌파했던 달러/원 환율이 이번 주에는 상승 변동성을 누그러뜨린 채 기존 박스권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10-1,345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3월 금리인하 기대 조정과 맞물린 지정학적 불안 및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위험자산과 통화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원화는 유독 약세압력을 키웠다.

하지만, 주 후반 반도체업황 기대 확산을 업고 외국인들의 귀환 속 국내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자 원화를 둘러싼 심리도 개선됐다.

연준의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하향 조정되는 등 다소 과했던 금리인하 기대 정상화 과정 역시 어느 정도 일단락된 분위기다.

금주는 1월 연준 정책회의를 앞둔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은 없을 예정이라 주중에 발표될 미국 1월 제조업 PMI, 4분기 GDP 속보치, 12월 PCE 물가 등의 결과에 따른 경기 진단 속 국내외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또한, 테슬라, 넷플릭스, IBM, 인텔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도 관심이다.

한편,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첫 열리는 BOJ와 ECB회의에서 특별한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향후 정책 스탠스 시사에 따른 시장 해석에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겠다. 위험선호 회복 속 약세 전환한 달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대거 확대된 원화 약세 변동성이 반도체 주가 회복과 잦아든 만큼 코스피가 단기 급락 이후 강한 반등에 나선다면 달러/원은 되돌림 시도에 나서며 기존 박스권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강한 비관론 속 중국 증시와 위안 약세 기조가 굳혀지고 있어 이 같은 영향권에 들어선 원화의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다. 이런 데다 최근 역내 수급이 꽤 타이트하다는 진단까지 내려짐에 따라 달러/원 저점 매수심리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

20일 기준 국내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잠정치와 중국 대출우대금리 결과는 이번 주초 원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 ECB VS 시장

25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금리인하 추측 억제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첫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4월로 한 달 미루는데 그쳤다. 시장은 여전히 올해 5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일부 비둘기파 조차도 아직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너무 많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상승했고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너무 높다.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ECB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팬데믹 시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명확히 밝혔다.

또 라가르드 총재는 홍해의 공급망 차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 BOJ 정책회의와 엔 약세

일본은행(BOJ)의 부양책 종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얼마나 빠르게 좌절됐는지는 통화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러/엔은 이번 달에만 5.6%나 상승해 148엔을 넘어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11월 중순 1년여 만의 최고치인 152엔을 기록한 후 5개월 만에 140엔 근처까지 반락한 12월의 환율 하락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서해안에서 새해 첫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2-23일 열릴 BOJ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리라는 기대감은 사라졌다.

도비시한 BOJ의 발언들로 이미 이런 베팅은 줄었고, 최근 데이터는 BOJ의 지원 없이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달러/엔이 150엔에 근접하면 도쿄에서 구두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권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엔화 약세를 반기지 않는다.

⊙ 美 인플레이션 지표와 금리 인하 전망

일부 연방준비제도 정책 결정권자들이 시장의 금리 인하 베팅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5일 미국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11월 개인소비지출(PCE) 수치는 전년비 2.6% 상승하고, 전월 대비로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머니마켓에서는 3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1주일 전의 77%보다 낮은 61%로 반영하고 있다.

12월 소매판매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와 싸우고 있는 연준이 3월 초에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한편 테슬라, 넷플릭스, 3M, 인텔 등 미국 기업 실적도 관심거리다.

⊙ 글로벌 PMI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와 함께 세계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 하리라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4일 발표될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위축된 기업 활동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의향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신규 주문은 모든 곳에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기업들이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고 있음을 신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번 주 주요 기술업체인 ASML, 로지텍, SAP, 그리고 명품업체 LVMH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 터키 통화정책회의

예상보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선거를 앞둔 지출, 리라 절하로 디스인플레이션 예상 경로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터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24일 얼마나 금리를 인상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터키 중앙은행은 경제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를 8.5%에서 42.5%로 인상했다. 지난달 중앙은행은 가능한 한 빨리 긴축 사이클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하피즈 계에 에르칸 총재는 필요한 만큼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미 지난달 금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며 긴축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70% 이상을 기록한 후 연말까지 약 4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아공 중앙은행도 24일 회의를 열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세트야 칸야고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월2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날짜 | 시간 | 국가 | 지표 | 기간 | 로이터 전망 | 이전수치 |
|----------|-------|-----|---------------------|---------|--------|---------|
| 1월18-25일 | | 중국 | FDI (YTD) | 12월 | | -10.00% |
| 1월22일 | 10:15 | 중국 | 대출우대금리 1년물 | 1월 | | 3.45% |
| 1월22일 | 10:15 | 중국 | 대출우대금리 5년물 | 1월 | -14.0 | 4.20% |
| 1월24일 | 00:00 | 유로존 |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 1월 | 9.1% | -15.0 |
| 1월24일 | 08:50 | 일본 | 수출 YY | 12월 | -5.3% | -0.2% |
| 1월24일 | 08:50 | 일본 | 수입 YY | 12월 | | -11.9% |
| 1월24일 | 09:30 | 일본 |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 1월 | 44.8 | 47.9 |
| 1월24일 | 18:00 | 유로존 |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 1월 | | 44.4 |
| 1월24일 | 21:00 | 미국 | 모기지마켓지수 | 1월19일주간 | 48.0 | 210.5 |
| 1월24일 | 23:45 | 미국 |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 1월 | | 47.9 |
| 1월24일 | 23:45 | 미국 |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 1월 | | 51.4 |
| 1월25일 | 22:00 | 미국 |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 12월 | | 1.495M |
| 1월25일 | 22:30 | 미국 | 내구재주문 | 12월 | 1.0% | 5.4% |
| 1월25일 | 22:30 | 미국 | GDP 속보치 | 4분기 | 2.0% | 4.9% |
| 1월25일 | 22:30 | 미국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1월15일주간 | 200k | 187k |
| 1월26일 | 00:00 | 미국 | 신축주택판매 | 12월 | 0.640M | 0.590M |
| 1월26일 | 08:30 | 일본 | 도쿄 CPI | 1월 | | 2.4% |
| 1월26일 | 18:00 | 유로존 | 총유동성(M3) 증가율 | 12월 | | -0.9% |
| 1월26일 | 18:00 | 유로존 | 가계대출 | 12월 | | 0.5% |
| 1월26일 | 22:30 | 미국 | 개인소득 MM | 12월 | 0.3% | 0.4% |
| 1월26일 | 22:30 | 미국 | 소비 MM | 12월 | 0.4% | 0.2% |
| 1월26일 | 22:30 | 미국 | 근원 PCE 물가지수 MM | 12월 | 0.2% | 0.1% |
| 1월27일 | 00:00 | 미국 | 잠정주택판매 MM | 12월 | | 0.0% |
| 1월27일 | 10:30 | 중국 | 산업이익 YTD | 12월 | | -4.4%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22일 (월)

-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23일까지)

1월23일 (화)

-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우에다 가즈오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30분)

1월24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및 통화정책보고서 (오후 11시45분), 티프 맥클럼 총재 기자회견 (25일 오전 0시30분)

1월25일 (목)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발표 (오후 10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10시30분)

1월26일 (금)

- ⊙ 일본은행 12월18-19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휴장국가: 호주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시범운영 내달 6일 처음 실시... 국내기관 10개 참여 - 외시협

서울, 1월17일 (로이터)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위한 시범운영을 내달 6일과 22일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시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시범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게시했다.

최초 시범운영일은 당초 계획한 2월 15일보다 앞당긴 2월 2일이며, 참여기관은 하나, 신한, 우리, 국민, 산업,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은행 8개와 미즈호은행과 키움증권이다.

한편 2월 22일에는 국내기관을 포함해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 중인 RFI는 약 10개 내외다.

시범운영은 런던장과 새벽시간에 현물환을 1회씩 매수·매도하는 등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보이스 방식 등으로 거래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운영 관련 거래는 한국은행, 금감원 등의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예나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종합)-SSBT 홍콩 이어 런던도 시중은행과 달러/원 스팟 추가 거래

서울, 1월16일 (로이터) -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과 시중은행들의 달러/원 스팟거래가 16일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체결됐다.

한국자금중개에 따르면 이날 오전 RFI로 등록된 SSBT 홍콩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달러/원 스팟거래를 한데 이어 오후에는 SSBT 런던이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체결했다.

지난 2일 SSBT 홍콩은 RFI 자격으로 서울외국환중개를 통해 하나은행과 최초로 달러/원 스팟을 거래한 바 있다.

한국자금중개 우해영 대표이사는 "현물환 거래에 대해 RFI와 실거래 테스트가 완료되면서 얼마 전 최초 RFI 스왑거래까지 더해 중개사 최초로 외환 선진화 부분에서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서 "시장과 더욱 소통하면서 외환 선진화에 있어 선도 중개업체가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헨리 큐크 SSBT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마켓 헤드는 "한국의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그 어느 기관보다 빠르게 API 거래 구축 환경을 완료했다"면서 "외환 시장 구조 변경을 통해 역내와 역외 모두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프리뷰)-BOJ, 1월 회의서 초완화 통화정책 유지 전망... 금리 인상 단서에 초점

도쿄, 1월18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은 1월22-23일 정책회의에서 초완화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종료 시기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BOJ의 목표치인 2%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지 몇 달 더 지켜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면 3월 또는 4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BOJ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은 적어도 4월25~26일 회의까지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단기 금리 목표치가 -0.1%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목표치가 약 0%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에다 총재는 23일 금리 결정 발표 후 오후 3시30분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비용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둔화됨에 따라 BOJ가 3월 중순 대기업과 노조 간의 연봉 협상 결과와 같은 데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BOJ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하는데 뒤처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도 "출구를 향해 서둘러야 한다는 압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후 공개될 분기 전망에서 BOJ는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근원 인플레이션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몇 년 추세 인플레이션이 2% 부근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대체로 유지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로이터에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BOJ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BOJ가 올해 대규모 부양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첫날 지진이 발생했고, 우에다 총재가 최근 인터뷰에서 초완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1월 긴축에 대한 베팅은 줄었다.

임금 협상 외에 BOJ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 및 시장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마에다 에이지 전 BOJ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2026회계연도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부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日 닛케이 랠리 놓칠라...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자들

싱가포르, 1월16일 (로이터) -

일본 증시가 연일 랠리를 보이며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달러들은 차트 레벨이 깨지면서 헤지펀드가 모멘텀을 쫓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달러들은 국내외에서 자금이 더 유입되면서 닛케이지수의 1989년 고점인 3만8,957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봤다.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면 1월 첫째 주에 외국인은 순매도했지만, 주식 현물은 매수한 것으로 거래소 데이터에 나타났고, 세일즈 데스크는 지난주 더 바빴고 매도자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타렉 호르차니 메이뱅크 증권 프라임 브로커리지 거래 책임자는 "연초부터 거래량이 12월보다 9배 많다"며 기술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은 롱-숏 주식 펀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23년 마지막 분기에 일본 자산 매수를 주저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는 일본 경제가 수십 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엔 약세가 수출 부문을 뒷받침 하며, 1월 강진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리라는 전망이 강화된 영향이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BOJ)은 인플레이션을 서둘러 억제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엔화는 약세를 유지하고 트레이더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최소 4월까지 유지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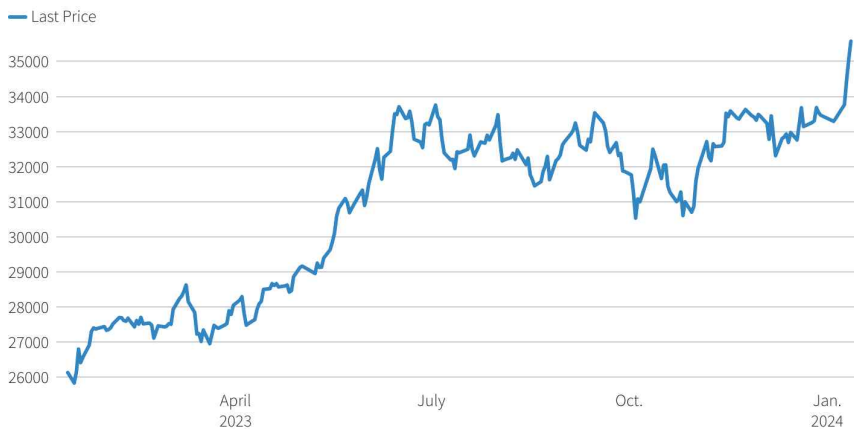
노무라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환경이 매도세를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장에 매도자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닛케이지수는 3만5,000선에서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을 듯하며, 1-3월 레인지는 3만3,000-3만7,000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겐지 아베 다이와증권 전략가는 연말 전망치를 4만으로 제시했다.

Nikkei Index

On Friday trading closed at 35577.11, up 36.21% from a year ago.



Published January 12, 2024 at 7:34 AM GMT
Source: LSEG

또한 투자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시장 주도권 변화가 랠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많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본 기업의 허술한 대차대조표를 강화할 것을 압박하면서 주식 바이백, 주가 상승, 투자 등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밀기기 부문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자산 운용사 컴지스트의 리처드 케이 일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설명했다.

그는 대형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브로커들은 이들의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형 매수 기관 6곳이 우리의 펀드를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왜 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세의 속도와 규모는 주가 반전을 불러오며 기술 지표는 경고 신호를 깜빡이고 있다.

실제 16일 닛케이지수는 지난 6거래일 간의 랠리를 종료하고 0.79% 하락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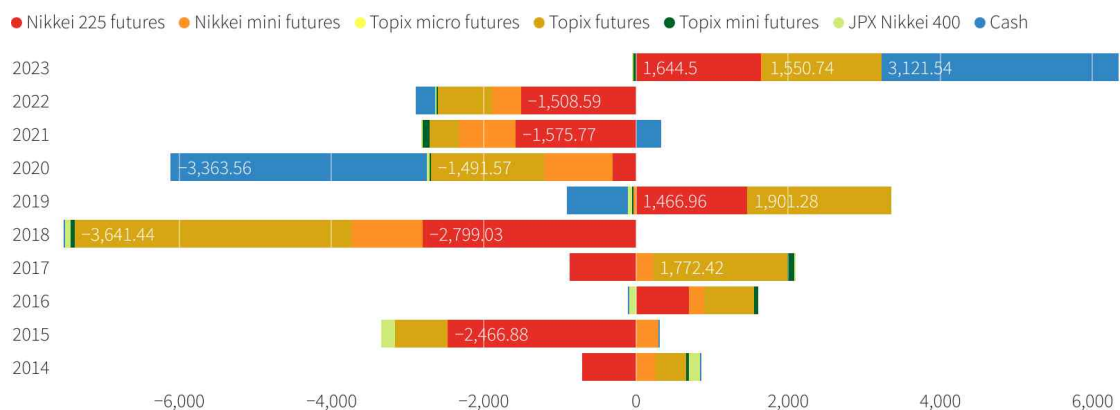
카일 로다 캐피탈닷컴 선임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는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비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고 본다"라며 "기술적으로 이렇게 과매도 되면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랠리가 지속되리라는 신호도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화 약세와 임금 인상 기대감이 작년 4월과 6월 사이에 닛케이지수는 20% 가까이 끌어올린 배경을 잘 보여줬으며, 감세 조치가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nual foreign flows into Japanese stocks & futures

In billion yen



Source: Japan Exchange Group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